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5~3/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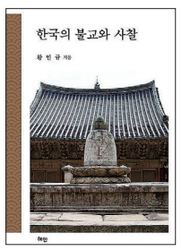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수심결	보조지눌/우득	뷰티플마인드
2	한글 금강경	우룡	효림
3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4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5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7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8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철	장경각
9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10	대안스님의 채소밥	대안스님	책책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무비스님의 예불문	무비	조계종출판사
5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그림	운주사
6	세계종교둘러보기	오강남	현암사
7	번뇌와함께춤춰라	함현준	운주사
8	니까야강독1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입보살행론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10	초역부처의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중세불교를 오늘에 다시 세우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
한국의 불교와 사찰
황인규 지음 / 도서출판 혜안
각 4만원, 4만5000원

역사교육 속 불교사 위상 회복
사찰 중심으로 조명한 한국불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40여 년간 한국 중세불교사와 역사교육 현장을 오가며 연구와 실천을 병행해 온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가 두 권의 역작을 동시에 내놓았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과 〈한국의 불교와 사찰〉은 각각 중세 불교사의 구조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사찰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개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연구서다. 두 책은 저자의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이자, 역사교육 속에서 불교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한국 중세불교와 역사교육〉은 고려와 조선을 중심으로 중세불교의 전개를 정리하고, 그것이 오늘의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가르쳐져야 하는지를 논한다. 제1부는 고려 불교와 역사교육, 제2부는 조선 불교와 의승, 제3부는 전통사회와 한국사 교육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고려 불교를 단순한 '호국불교'나 '사원경제' 중심의 도식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선종 9산문의 전개와 조계종의 형성, 특히 보조 국사 지눌의 수선사 결사를 통해 드러난 사상적 혁신을 중세 사회 변동과 연결한다.

또 국사와 왕사 다음 지위로 왕실 불교를 주관한 내원당 감주와 비구니 도량인 정업원 등 왕실 불교의 제도적 장치, 대장경 조판과 대외 항쟁 역시 국가·사회·종교가 교직된 현장으로 해석한다. 조선 시대에 이르면 숭유억불 정책 속에서 불교는 제도적으로 위축되지만, 그 내면의 동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학 대사의 왕사 책봉, 능침 사찰의 존속,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의승의 봉기는 그 단적인 사례다. 특히 기허 영규 대사의 금산전투 참여와 순교는 불교가 국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영 사찰 운영은 조선 후기 270년간 국가 수호와 불교 수호가 중첩된 현장이었다.

이 책의 또 다른 축은 교과서 서술 비판이다. 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고등국사〉부터 최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불교사 서술은 정치사에 종속되거나 사원경제·유불 교체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불교사와 불교문화가 독립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족의 삶과 문화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와 사찰〉은 한국불교의 초기부터 성장, 전개 과정을 삼보사찰과 적멸보궁 등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조명한 책이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하나가 곧 일체'라는 원융 사상이 어떻게 공간과 제도로 구현되었는지를 사찰의 창건·이전·재편 과정을 통해 추적한다.

책의 1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신라 고승 자장의 진신사리 봉안과 후대의 이전·분장 과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며, 통도사를 비롯한 적멸보궁 체계의 형성과 확산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리 신앙은 불교 외연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고려 후기 수선사와 사굴산문의 전개,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결사 전통과 삼보사찰의 성립, 남북 접경의 조제암과 발해 사찰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따라 불교의 역사 지형을 복원한다.

저자는 두 책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가 형성해 온 공동체 정신과 사상적 기반을 오늘의 교육 속에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묻는다. 불교사를 '종교사'의 범주에 가두지 말고, 공동체 정신과 문화 형성의 핵심 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대승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불교와 에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
운주사
2만8000원

경전, 구술에서 기록으로
매체 혁명이 낳은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교리와 사상의 내용 분석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질문의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전환한다. 대승경전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해지고 성립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구두(口頭)에서 서사(書寫)로 이어진 전승 매체의 변화가 곧 대승불교 탄생의 조건이었다는 파격적인 문제 제기다.

문자로 기록되기 전 불교의 가르침은 상황과 청중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개됐다. 전승자와 청취자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됐고, 암송과 반복, 공동체적 기억은 수행의 한 방식이자 진리의 보증 장치로 기능했다.

책의 핵심은 문자 매체의 등장 이후 나타난 구조적 변화에 있다. 가르침이 기록되고 보존되면서 텍스트는 고정된 권위를 획득한다. 저자는 이를 자크 데리다의 '에크리튀르(écriture)' 개념과 연결해 분석한다. '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고 권위를 생산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월터 옹의 구술·문자 문화 이론과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성전 연구를 교차 인용하며, 불교 경전이 어떻게 '성전'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설명한다.

경전은 새로운 학습과 해석의 방식을 낳았고 수행 공동체의 구조까지 재편했다. 출가 승단 중심의 구전 공동체와 달리, 기록된 경전은 재가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대승불교 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읽어 낸다. 대승경전은 교리적 혁신의 산물이기 이전에 매체 혁명이 낳는 산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경전 제작과 유통의 실천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대승 교단이 성립했다고 말한다. 이는 대승불교를 사회적·매체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살아 있는 산물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금강경〉 강설집 시리즈 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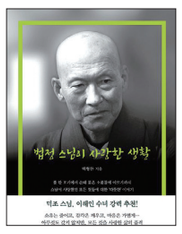


금강경 직지설법 3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 시리즈 완결본이다. 3권은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의 해설을 담고 있다.

조사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자, 2001년 무심선원을 개원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자는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단계별 수행을 통해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거나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 완전하고 무한한 본성을 그저 발견하도록 돕는 가르침"이라며 "〈금강경〉은 생각이 지어내는 꿈의 세계에서 깨어나도록 분별심을 부수며 생각 밖의 진실을 가리켜 준다. 생각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본래면목이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모든 것



법정 스님이 사랑한 생활
백형찬 지음
파람북
1만9000원

백형찬 전 서울예대 교수가 법정 스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고백한 수필집이다. 가톨릭 신자인 저자는 1989년 순천 송광사의 '출가 4박 5일' 수련 프로그램 참가를 계기로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수필가로 등단했다. 책에는 풀과 꽃, 나무, 차, 음악, 그림 등 법정 스님이 사랑한 것들을 스님의 삶과 책에서 길어 올려 엮었다.

덕조 스님(길상사 주지)은 "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으로 다시 불러오는 이 책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맑고 향기로운 삶의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라는 추천사를 남겼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에 기부된다.

비건 철학자의 먹는 법, 사는 법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
매튜 C. 할트먼 지음
이유림 옮김
한문화
2만원

누군가 '채식주의'를 선언한다면 가벼운 호기심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라면 식사 때마다 메뉴를 고민하거나 육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러한 불편한 시선을 전제로 '비건'의 세계로 안내한다. 미시간주 캘빈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영국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 연구원인 저자는 비건을 윤리적 의무나 금지의 언어로 설명하는 대신, 우리의 '먹는 선택'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다른 생명과 환경,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짚어 낸다. 비건은 완성이 아니라 '되어 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다.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